

與 “경제·노동개혁 법안 연계” 野 “TK 퍼주기 예산 막겠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불붙은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앞두고 여야 간 예산전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겠다는 강공 방침을 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선용 예산’, ‘지역편중예산’은 바로잡고 복지·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맞붙을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에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과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전략은 통상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자 써온 방법

새누리 “FTA 비준안 처리”

새정치 “지역편중 시정할 것”

으로, 집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야당에 주요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1월30일 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 의도록 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 일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 (속칭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작년부터 발효된 데 따른 진풍경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뒷받침자 여론 실세들이 대거 포진한 TK(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현미경 심사’를 다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의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 사업비는 0원에서 288억원으로 순증했고

대표적 ‘최경환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지적한 뒤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복지는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하고 친박실세 총선용 ‘예산폭탄’은 전문화적인데, 이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에 표를 주는 특정 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평가하기 예산 등 세금낭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기재부에서 증액된 영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8000억원이 된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증액 규모는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 일자리를 약 1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연계 전략에 대해서는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여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무’ 1972억원



20세기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1884~1920)의 회화 ‘누워있는 나무’가 9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7천40만5천 달러(약 1972억원·수수료 포함 가격)에 낙찰됐 다. 전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이다. 한국인 미술품 딜러 신흥규 씨가 1억4천만 달러(약 1620억원)를 불러 한때 낙찰되는 듯 했으나 중국 상하이의 롱미술관 설립자인 류이첸과 왕웨이 부부가 전화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결국 작품의 주인이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0’

시·도교육청 예산 반영 안해...유치원 입학전쟁·보육대란 불 보듯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애초 밝힌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핵심 사업 예산 등도 상당 부분 삭감, 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보육 대란...젊은 엄마들 걱정=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1조7015억)에 만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1376억) 중 유치원 지원 사업비(706억)를 제외한 어린이집 지원 경비(670억)를 편성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전년도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했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사업비(162억)를 대폭 삭감해 54억원만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생의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된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은 예산 지원 여부가 불확실

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 원서를 받아놓는 등 바빠졌다. 광주만 하더라도 어린이집(1266개)이 유치원(306개)보다 훨씬 많다.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쉽게 찾았던 엄마들이 이제는 유치원을 수소문하는 등 입학 경쟁에 나서야할 처지라는 얘기다. 시교육청도 올 해 경쟁률이 치열했던 공립 단설 유치원들의 ‘입학 경쟁’이 가열될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3조 1527억)원을 편성하면서 1433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예산(482억)만 편성, 전남도에 제출기로 했다. 어린이집 예산(951억)은 재정난을 고려해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비 줄줄이 삭감...교육 정책 ‘비틀’=전남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청 핵심 현안이나 학교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인에도,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해 편성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가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칫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정만대 전남도교육감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무지개 학교 운영비의 경우 담당 부서 요구(72억원)를 받아들이지 않고 61억만 반영했다. 독서토론 선도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도 요구액(3억3000만원)보다 감액한 2억2000만원만 편성했고 주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토요스포츠강사 사업’도 절반을 감액한 6억원만 반영,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또 초·중·고등학교 안전을 위해 추진했던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사업(47억)은 전액 삭감돼 학생들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소규모 농어촌학교 특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농어촌 연중행복학교 운영사업’도 전년도 수준(12억)은 커녕,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아 사실상 ‘좌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컴퓨터 교체비는 요구액(154억)의 3분의 1 수준인 57억원만 반영됐고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비도 전체 요구액(254억) 중 165억만 편성됐다. /박지영기자 dok2000@

총선 코 앞...특별교부세 확보 사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지역구 숙원사업 처리 경쟁

총선을 코앞에 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 지역구의 숙원사업 처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금이 라고도 한다. 보통 발전이 더딘 농어촌 지역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우선,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최근 지역 현안사업인 돌산읍 도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7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최근 ▲광양 서산 근린공원 및 주차장 조성비 7억원 ▲구례 봉서~오봉 도로 확·포

장 사업비 7억원 ▲구례 섬진강 수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등 3건에 모두 2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올 한해 동안 모두 74억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행복나루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병완 의원(광주 남)도 월산동 동사무소와 MBC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팔리터 리테마파크 조성 4억원 ▲분재테마공원 조성 4억원 ▲군정홍보LED사업 3

억원 등 모두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한해 동안 모두 46억1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보성·고흥)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고흥읍 공용터미널~등암간 확·포장사업 4억원, 보성 다목적 트레일링장 건립 6억원 등 올해 모두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뒤늦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지역구 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17억원과 장성 월평초교 교실 증축·시설 개선에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100억원을 넘겨 주목을 끌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여행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사: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